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소식지
2016년 통권 제 14 호



케리그마

케리그마(kerygma)란 그리스어로 복음선포라는 뜻입니다.



작은 나눔 큰 힘

유 연 창 베드로 지도신부

이 사진은 파리 외방 전교회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으로 한국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1864년 6월 15일 성 랑페르 드 브르트니에르, 성 도리 헨리코, 성 볼리의 루도비코, 성 위앵 루카 신부는 파리 외방 전교회 성당에서 선교사 파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이별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아베 마리아>를 작곡한 샤를 구노입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 성당



오르간 반주자였으며 선교사를 꿈꾸며 신학생으로서도 양성을 2년간 받았던 구노는 병인박해 때 순교한 네 신부님을 기리며 가톨릭 성가 284번 <무궁무진세에>를 작곡합니다. 제대 앞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의 담담한 모습과는 달리 보내는 가족들과 전교회 동료들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겪을 고통과 어려움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 파견된 네 신부님은 이역만리 조선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15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해외 선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 기후, 음식 등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적응해야하고, 때로는 다치기 쉬운 곳에서 지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할 때도 생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시골 공소에는 이른바 ‘신부님 음식’이 있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도 갈 수 없는 외국 신부님들을 위해서 소문으로 들은 서양 음식 흉내를 낸 반찬을 1년에 한두 번 공소에 사목방문 오신 신부님께 식사 때 올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는 경우보다는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에서 도움을 받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옛날 외국 신부님을 위해 서양 음식을 준비하듯이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도록 후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복 이후 미국이나 독일 신부님들이 고향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우리나라 신자들을 위해 쓰고 성당을 지었듯 우리도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가난한 이들 앞에 걸음을 멈추어라!

김명복 에드몬드 후원회장

2016년 새해 원단 대희연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환희의 노래를 불러보자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속 깊은 곳들아 함성을 질러라 기뻐 소리쳐라!”(이사야44,23) 병신년 새 날이 밝아 왔습니다. 교우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2000년 8월 창립 이래 2015년 12월 31일 현재 까지 전 세계 33개국 35개 선교단체 및 선교사들에게 224회에 걸쳐 현금 2억 6천 8백 2십 3만 3천원, 물품 359박스(금액추산 90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이 많이 아파야 종소리가 멀리 가듯이 우리 회원님들의 희생과 정성이 깊을수록 우리가 후원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고통이 감소되고 기쁨과 희망이 커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49차 세계평화의 담화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고통 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책임인 것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관심속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의 커다란 곤경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들, 길반대편으로 지나가버린 이들(루카10,31~32)을 꾸짖으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세상의 고통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법을 배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숲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 다투어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크리킨디새는 주둥이에 물고 온 물 한 방울로 불을 끄느라 분주했습니다. 도망가는 동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크리킨디새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뿐이야” -남미의 한 부족 내에 전해 내려오는 크리킨디새 우화중에서 -

크리킨디 새의 물 한 방울이 숲의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지라도 숲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지원하는 후원금이 미약하여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열악한 환경과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좀 더 성의를 내고 기도합시다.

원숭이의 해에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 2015년도 해외선교후원회 결산 보고 ♥

(기간: 2015. 1. 1 ~ 12. 31)

수입		지출			
내역	금액	월별	내역 (후원단체)	금액	
전년도 이월금	2,085,892	1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도회(페루)	1,000,000	
			살레시오 수녀회(에디오피아)	1,000,000	
후원회비	18,736,000	2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잠비아)	1,000,000	
			예수성심전교 수녀회(중국)	3,378,000	
특별후원회비	4,629,000	3	예수성심전교 수녀회(필리핀)	1,000,000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베트남)	1,000,000	
이자	962	4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1,000,000	
			사랑의 씨튼 수녀회(중국)	1,000,000	
		5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1,000,000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방글라데시)	1,000,000	
		6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1,000,000	
			예수의 선교 수녀회(콜롬비아)	1,000,000	
		7	요셉 수녀회(네팔)	2,000,000	
		8	작은 예수 수녀회(브라질)	1,000,000	
		9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콩고)	1,000,000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코트디부아르)	1,000,000	
		10	보혈선교 수녀회(케냐)	1,000,000	
		11	예수그리스도 수녀회(에콰도르)	1,000,000	
			한국외방선교회(캄보디아)	1,000,000	
		12	박기덕 바오로 신부(칠레)	1,000,000	
		소계	15개 선교단체 20곳 선교지 지원	23,378,000	
		미사예물(1~12월)			240,000
		후원회지 케리그마 인쇄비			450,000
		차기 이월금			1,383,854
수입 합계	25,451,854	지출 합계		25,451,854	

♥ 2015년도 해외선교후원회 활동 사항 ♥

(기간: 2015. 1. 1 ~ 12. 31)

월별	후원 단체	후원사업 내용
1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도회(페루)	빈민교육사업: 아야꾸초 칸가리 지역 아동 공부방지원
	살레시오 수녀회(에티오피아)	빈민교육선교: 딜라 지역 우물파기사업지원
2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잠비아)	빈민선교사업: 무푸리라 산사초등학교 고아원아동 교육지원
	예수성심전교 수녀회(중국)	빈민선교사업: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교육활동지원
3	예수성심전교 수녀회(필리핀)	빈민선교사업: 무료급식, 의료봉사활동 등 공부방운영지원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베트남)	빈민교육사업: 건터교구 가이랑 본당의 장애인 한글교실지원
4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빈민선교사업: 이네셈학교 새 삶 지원 및 모자보건활동지원
	사랑의 씨튼 수녀회(중국)	빈민교육사업: 연길 서광의 집 장애인 교육 및 치료비지원
5	한국의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빈민교육사업: 코차밤바 최요한 공부방 운영비지원
	한국의방선교 수녀회(방글라데시)	빈민교육사업: 'MSK 바보센터 핸드캡클럽' 운영지원
6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빈민교육사업: 울란바트르 쉼뽕초등학교 운영지원
	예수의 선교 수녀회(콜롬비아)	새 삶터 운영: 깔다스교구 어린이, 부녀자교실 운영지원
7	요셉 수녀회(네팔)	빈민교육사업: 카트만두 산파리니학교 운영지원
8	작은 예수 수녀회(브라질)	빈민선교사업: 행려인 무료급식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지원
9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콩고)	빈민교육사업: 지역 청소년들의 재활교육 및 자립활동비지원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코트디부아르)	빈민의료사업: 현지풍토병 브릴리케양 치료 및 의료사업지원
10	보혈선교 수녀회(케냐)	빈민교육사업: 바만야 학교 기숙사시설 및 도서관구입비지원
11	예수그리스도 수녀회(에콰도르)	빈민선교사업: 빈민 의료 및 무료급식비지원
	한국의방 선교회(캄보디아)	빈민교육사업: 프놈펜 코미소 기술훈련학교 운영지원
12	박기덕 바오로 신부(칠레)	빈민선교사업: 무료급식 및 의료봉사활동지원

♥ 2016년도 (복지)분과 해외선교후원회 사업계획서 ♥

월별	행 사 내 용	행사일자	비 고
1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살레시오 수녀회 ; 에티오피아)1,000,000원 ③ 케리그마 14호 제작 및 배포(해외 원조 주일)	1월 10일 1월 31일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봉헌 : 매월2째주 일요일 9시 ※월례회 : 9시 미사 후
2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잠비아)1,000,000원	2월 14일	
3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후원계획(예수성심전교 수녀회; 필리핀, 베트남)2,000,000원	3월 13일	
4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예수그리스도 수녀회 ; 에콰도르)1,000,000원	4월 10일	
5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의 ②후원계획(한국외방선교수녀회 ; 볼리비아, 방글라데시)2,000,000원	5월 8일	
6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 몽골)1,000,000원 ③ 후원계획(예수의 선교 수녀회 ; 콜롬비아)1,000,000원 ④ 제 10회 교구 3개 본당 해선후 임원단 정기모임	6월 12일	안락성당 주최
7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요셉 수녀회 : 네팔)1,000,000원	7월 10일	
8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작은 예수 수녀회 ; 브라질)1,000,000원	8월 14일	
9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그리스도 교육 수녀회 ; 콩고, 코트디부아르)2,000,000원	9월 11일	
10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보혈 선교 수녀회 ; 케냐)1,000,000원 ③후원계획(박기덕 바오로 신부님 ; 칠레)1,000,000원 ④ 제 11회 교구 3개 본당 해선후 임원단 정기모임	10월 9일	남산성당 주최
11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페루)1,000,000원 ③ 후원계획(한국외방 선교회 ; 캄보디아)1,000,000원	11월 13일	
12월	① 해외선교후원회 월 미사 및 월례회 ② 후원계획(사랑의 씨튼 수녀회; 에콰도르, 중국)2,000,000원	12월 11일	※2016년도 정기총회
지출	1.선교지 19곳 각 1,000,000원씩 지원 - 19,000,000원 2.후원회 미사봉헌 예물 - 240,000원 3.회지제작비 - 1,000,000원 4.차봉사, 홍보물제작, 예비비 - 1,760,000원 지출합계 = 22,000,000원	예상 수입	1.이월금 - 1,383,854원 2.후원회비-17,500,000원 3.특별회비- 3,116,146원 수입합계= 22,000,000원

♠ 2015년도 해외선교 후원 회비 납부현황 ♠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1구역〉			〈5구역〉		
1	이정숙 / 소화데레사	60,000	29	이민원 / 베드로	36,000
2	이현식 / 다니엘	60,000	30	허성원 / 라우렌시오	60,000
3	윤정필 / 베드로	60,000	31	박정숙 / 엘리사벳	120,000
4	곽근희 / 요셉파나	60,000	32	강순조 / 아브라함	36,000
5	박유석 / 요셉	60,000	33	고유건 / 라우렌시오	60,000
6	박외숙 / M. 스텔라	120,000			
7	김덕안 / 베드로	60,000			
〈2구역〉			〈6구역〉		
8	우애숙 / 글라라	110,000	34	강신수 / 예로니모	120,000
9	류인덕 / 요셉	70,000	35	손영식 / 로벨도	14,000
10	배봉희 / 노엘라	60,000	36	김무자 / 마리아	60,000
11	백순임 / 엘리사벳	60,000	37	구정현 / 엘리야	120,000
12	박화춘 / 요한	60,000	38	이정자 / 로사리아	120,000
			39	허 만 / 베르나르도	60,000
〈3구역〉			40	김종곤 / 암브로시오	60,000
13	김영아 / 아니타	120,000	41	김위규 / 요셉	60,000
14	전동조 / 아브라함	36,000	42	이동본 / 프란치스코	1,000,000
15	최병식 / 안토니오	36,000	43	채용배 / 보나벤투라	55,000
16	윤영근 / 요아킴	10,000			
17	김춘자 / 베로니카	120,000			
18	우재권 / 요셉	120,000			
19	정영혜 / 세실리아	60,000			
20	한성광 / 레오	40,000			
21	박호균 / 요셉	60,000	〈7구역〉		
22	유길호 / 시메온	60,000	44	김용우 / 세례자요한	120,000
			45	이호영 / 베드로	60,000
〈4구역〉			46	김완석 / 알폰소	120,000
23	이광영 / 펠릭스	60,000	47	이성일 / 로렌조	8,000
24	박정환 / 사도요한	60,000	48	김이경 / 미카엘	45,000
25	변상길 / 가시아노	60,000	49	지남숙 / 엘리사벳	60,000
26	신현권 / 아우구스티노	60,000	50	전영자 / 베네란다	36,000
27	박재호 / 예로니모	120,000	51	강영란 / 크리스티나	36,000
28	권혜영 / 안젤라	60,000	52	김영순 / 나탈리아	60,000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8구역〉			〈10구역〉		
53	박희찬 / 요셉	30,000	80	서정승 / 프란치스코	60,000
54	송명섭 / 안토니오	24,000	81	전상훈 / 안드레아	36,000
55	장두채 / 루카	120,000	82	최경자 / 아네스	24,000
56	박복래 / 마리아	60,000	83	서미영 / 아네스	240,000
57	허종개 / 아우구스티노	120,000	84	박호근 / 루카	30,000
58	김원화 / 안젤라	24,000	85	이기만 / 도마	24,000
59	박정운 / 프란치스코	120,000	86	김소영 / 마르타	100,000
60	윤순옥 / 모니카	120,000	87	김광록 / 요한보스코	120,000
61	박태영 / 세례자요한	620,000	88	이임자 / 마틸다	55,000
62	류건희 / 아네스	240,000	89	박 호 / 요한	120,000
			90	김영일 / 하상바오로	360,000
			91	이재수 / 즈가리아	75,000
			92	문휴원 / 임마누엘	600,000
〈9구역〉			〈11구역〉		
63	김기택 / 세례자요한	60,000	93	강기수 / 마태오	120,000
64	김현민 / 소피아	60,000	94	김춘명 / 아네스	36,000
65	강정열 / 헬레나	60,000	95	강문구 / 요셉	60,000
66	김숙해 / 에반젤리카	60,000	96	이말순 / 카타리나	60,000
67	김동식 / 아오스딩	100,000	97	배명란 / 젤뚜르다	36,000
68	장병수 / 그레고리오	36,000	98	구증희 / 루카	240,000
69	김대원 / 안드레아	120,000	99	박선호 / 요한	24,000
70	김형수 / 즈가리아	65,000	100	오시용 / 프란치스코	240,000
71	김영환 / 스폴라스티카	65,000	101	이영우 / 발렌티노	60,000
72	김의용 / 요한	600,000	102		
73	박인순 / 안나	140,000			
74	박영자 / 안젤라	36,000			
75	류해전 / 스테파노	120,000			
76	김준혁 / 베드로	120,000			
77	양수남 / 크리스티나	24,000	〈12구역〉		
78	김은희 / 마리아	120,000	102	김옥자 / 벨라멧다	60,000
79	이장희 / 로마노	120,000	103	박영곤 / 안드레아	60,000
			104	김재훈 / 스테파노	60,000
			105	이용인 / 요한	120,000
			106	유동부 / 루카	60,000
			107	김명복 / 애드몬드	120,000
			108	정춘옥 / 바실리아	36,000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13구역〉			〈17구역〉		
109	곽태훈 / 야고보	120,000	133	전순현 / 안나	120,000
110	최정임 / 유스티나	60,000	134	이수덕 / 아오스딩	60,000
111	이순자 / 스텔라	30,000	135	황미선 / 바르바라	110,000
112	이상배 / 미카엘	120,000	136	이정희 / 데레사	60,000
113	조운경 / 요한	120,000	137	김광원 / 스테파노	60,000
〈14구역〉			〈18구역〉		
114	장경란 / 수산나	60,000	138	설순심 / 안나	5,000
115	옥재호 / 베드로	18,000	139	조일제 / 마르코	120,000
116	김영순 / 세라피나	120,000	140	정호기 / 안드레아	60,000
117	황숙자 / 율리안나	36,000	141	김성환 / 요셉	240,000
118	차무언 / 베드로	60,000	142	유사순 / 마르타	24,000
119	김수현 / 안젤라	120,000			
120	차경옥 / 수산나데레사	6,000			
〈15구역〉					
121	김명숙 / 우슬라	24,000			
122	김옥분 / 카타리나	60,000	〈19구역〉		
123	성난희 / 아네스	60,000			
124	김남희 / 도미니카	60,000	143	이영화 / 루시아	480,000
125	이수택 / 레오로렌마티노	60,000	144	김영희 / 마르타	60,000
126	김종학 / 프란치스코	60,000	145	강희선 / 아타나시오	60,000
			146	이부식 / 안토니오	60,000
〈16구역〉			147	김구용 / 요셉	24,000
127	윤정자 / 루시아	24,000	148	김갑룡 / 요한	60,000
128	임병학 / 베드로	55,000	149	설상국 / 스테파노	60,000
129	엄향숙 / 데레사	60,000	150	김영희 / 카타리나	60,000
130	류춘태 / 마리아	120,000	151	김정자 / 안나	24,000
131	금병호 / 요한	60,000	152	김성덕 / 대건안드레아	60,000
132	황영진 / 프란치스코	60,000	153	김동수 / 알로이시오	120,000
			154	김명애 / 안젤라	240,000
			155	김정희 / 실비아	60,000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20구역〉			〈24구역〉		
156	강병화 / 가밀로	120,000	172	이상관 / 그레고리오	120,000
157	권오기 / 그레고리오	60,000	173	이중길 / 에밀리오	120,000
			174	고준태 / 알비노	60,000
			175	박선조 / 요셉	120,000
			176	이희영 / 베드로	60,000
〈21구역〉			177	신정남 / 크리스티나	60,000
			178	유석준 / 도미니카	120,000
158	이종기 / 라우렌시오	60,000	179	김미향 / 안젤라	120,000
159	김대경 / 바오로	60,000	180	강동석 / 알로이시오	120,000
			181	변혜숙 / 수산나	120,000
			182	이갑승 / 라파엘	120,000
			183	김찬득 / 야고보	120,000
〈22구역〉			184	신정택 / 베드로	240,000
			185	박태민 / 다니엘	360,000
160	이희경 / 글라시아	60,000			
161	정옥이 / 끌리레아	30,000			
162	이동규 / 제리노	60,000			
163	이경희 / 소피아	24,000			
164	김혜자 / 엘리사벳	60,000			
			〈기타 구역〉		
			186	김귀례 / 마틸다	10,000
			187	최원필 / 안젤라	36,000
			188	정연현 / 요셉	15,000
〈23구역〉			189	최윤용 / 루피나	120,000
165	이임출 / 율리아	120,000	190	김동훈 / 암브로시오	60,000
166	조진호 / 보나벤투라	120,000	191	박기봉 / 프란치스코	120,000
167	이숙종 / 실비아	36,000	192	신기문 / 요한	10,000
168	장종희 / 마리안나	60,000	193	노남경 / 안나	40,000
169	박창범 / 체칠리오	60,000	194	이상은 / 요셉	36,000
170	권영미 / 체칠리아	55,000	195	이승화 / 안토니오	24,000
171	이경순 / 프란치스코	120,000	196	이상민 / 사무엘	60,000
			197	백경돈 / 루까	120,000
			198	이학열 / 베르나르도	1,240,000
			199	정가희 / 프란치스코	60,000
			200	정현식 / 라우렌시오	60,000
			201	박지수 / 켈마	20,000

예수의 선교 수녀회
Calle 130, # 49-43 Casa Episcopal Caldas
Antioquia, COLOMBIA Tel: 57-4-3784561, 3386242

부산 남산 성당 해외선교 후원회장님 귀하

2015년 7월 3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문안드립니다.

해마다 저희 예수의 선교 수녀회가 운영하는 노숙자 들을 위한 <새삶센터>를 지원하여 주시는 귀 본당의 해외선교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녀회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메시지에 충실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목방침에 힘을 얻으며, '봉헌 축성생활의 해'를 지내는 가운데 수도자의 사명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수도자의 증가는 매우 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수도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적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시점에 이룰수록 변두리로 밀려 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더욱 가져야 하기에 교우들의 정성을 모아 후원을 계속하시는 부산 남산 본당 해외선교회 관계자 모든 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임

신부님의 관심과 격려에도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도직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 2015년 7월1일 국민은행으로 송금하신 성금 1백만원(1,000,000원) 감사드립니다.

저희 콜롬비아 깔다스 교구, 수녀원과 <새삶센터>에서 찍은 사진 두 컷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선교 수녀회 한국분원장 유영월 베로니카 수녀(010-6352-2391)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51번길, 16-14, 201-801 lunabonitaryu@hanmail.net

무슬림 · 힌두교 · 크리스찬이 공존하는 평화 학교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지에서 저희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Nazareth[나자렛] 학교는 2013년 6월 방과 후 학교 30명 정도로 시작하여, 현재 오전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5학년까지, 오후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10학년까지 있습니다.

처음 학교를 인수받아 이곳에서 왔을 때에는 이 마을은 가장 빈민가 중에서도 빈민가에 속하는 것이었고 무슬림, 힌두교, 크리스찬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싸움은 늘 무슬림들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민의 88%가 무슬림 국가이고, 파키스탄과 맞물려있어 무슬림들이 폭력적 성향이 강합니

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는 마을도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무슬림, 힌두교가 거주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 얼마 있지 않아 무슬림, 힌두교 아이들의 부모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아이들도 학교에 좀 보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교님과 상의 하에 무슬림, 힌두교 모두 종교를 초월하여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학부모 회의를 할 때에는 종교가 다른 부모끼리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들 소풍 갈때 함께 모여 도시락도 만들고 애들을 위하여 수시로 함께 모여 학교를 도와줍니다.

이제는 종교의 벽을 넘어선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서로 죽이고 싸움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지역에서는 평화롭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종교가 다르지만 함께 놀고 자람으로서 나중에는 좀 더 종교간 갈등이 완화되고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수녀회가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그들의 삶속에 스며드는 선교를 한다면 언젠가는 조금 나아지는 방글라데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 기도중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억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요일만 되면 학교 가려고 합니다.

2015학년도의 방문학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베드로 까르보에서 40여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 비자오 마을에 있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학교'를 찾아갔던 우리 재활치료팀은 강을 두번이나 건너야 하는 그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요즘, 더 이상은 우리 봉고차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음을 기약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학교 프로그램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는 물론 지체 부자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물론 학습 부진아이지만 교사로부터 '장애아'로 찍혀 심적 위축감에 빠진 학생에게 그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학교가기는 싫어하는 친구가 목요일만 되면 일찍 일어나 학교 가야한다고 나서더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뿌듯함과 함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약속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시더니, 알고 보니 우리 주실 점심식사 준비를 비밀리에 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하마터면 밥도 못 얻어먹고 되돌아 올 뻔 했어요. ^^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해달라는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네요. ^^ 이 점심은 그분들이 우리들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준 선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사뭇 다른 밝음을 보이는 아이들 덕에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이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말이지요. ^^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보혈선교수녀회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에 후원금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수녀회 한국지부를 거쳐 2015년 3월 초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매우 덥고, 지저분하고 바람이 센 주자(지역이름)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가까이나 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지만 사람들과 동물들과 땅은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 옥수수가 좋은 작황을 기대할 수 없어서 옥수수를 일찍 베어 사료로 비축하였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소 사료로 쓸 수 있으니 헛되어 베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 우기이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2월 총본부를 통해 너무도 감사하게 관대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해를 시작하며 수업료와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별 아이들의 집’에는 현재 8살에서 16살까지의 아이들이 54명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이로비(케냐의 수도)와 띠카(케냐 인근지역) 빈민가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띠카의 빈민가는 매우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띠카의 아동보호국 인근의 난민촌에서 매 맞고 학대받던 두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류도 전혀 없어서 수녀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정보를 얻기 위해 빈민가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들은 잘 적응해가고 있고 자신들의 지난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7명의 아이들이 있고, 보혈 초등학교에 25명, 중학교에 14명 그리고 고



등학교에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 6명의 학생들이 다른 고등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 젊은이들이 이 집을 떠나 자신들의 발로 설수 있고 삶을 자신들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후원단체소식 - 보혈선교 수녀회 : 케냐 -

우리는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졸업장을 받도록 교육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지난해에 중학교를 마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직업 훈련원에 진학해서 자신들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업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는 우리에게 큰 난관이지만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과 기쁨을 주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랑 안에서 고레타 비버로우어 수녀



후원단체소식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 코트디부아르-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하는 박프란치스카 수녀입니다.

저희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사명을 잊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약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이곳 풍토병 환자가 입원 중에 있고 입원은 약 6개월에서 몇 년까지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이 질병은 아직도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상황 안에서 힘든 질병의 하나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치료를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의 병원치료 입원비 등 이 환자들 스스로는 치료비가 너무나 큰 짐이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 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환자들을 기억하고 환자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이 사람들을 위한 상처 치료에 필요한 거즈, 붕대, 소독약, 항생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시는 고마운 마음에 감사드리며 부산 남산동 본당 신자 분들과 해외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후원회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저희 직원들과 환자들 모두 기도 안에서 기억합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박 프란치스카 수녀 드림

▶ 코트디부아르의 풍토병 '브릴리 궤양' : 오염된 강에 사는 물벼룩이 피부에 침투해 피하 조직을 파괴하는 병.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악화되면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무서운 병.

교육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몽골 울란바트르에 거주하는 극빈가정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 교육을 통한 선교활동을 합니다. 학교의 규모는 유치원 1학급 30명, 1~5학년 각 1학급씩 5학급 125명으로 모두 6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급격한 사회변환의 여파로 사회 전반

에 걸쳐 빈곤과 실업이 증가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혼·가출 등 가정의 위기가 초래되어 가정에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도둑질과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몽골 사회의 전반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 및 구제 기관들이 이러한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의식주 문제만 임시방편으로 충족시켜줄 뿐 근본적인 문제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녀회는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회복을 지향하여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빈민 또는 고아들에게 다시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나아가 보다 차원 높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21 세기를 주도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이 품어 나오니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합니다.

2015년 1월 우리 후원회에서 에티오피아 살레시오 수녀회 선교지 우물 공사에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을 현지 수녀님이 한국 살레시오 수녀회에 두 차례에 걸친 메일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실어드립니다.

1차 메일 : 모두들 잘 계시지요? 저는 잘 있습니다. 며칠 전 총회전달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우물 공사에 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간단히 소식 보냅니다.

4월 10일, 우물 파는 회사에서 기술자가 와서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보고 가면서 모든 재료가 구입이 되면 4월말에는 시작할거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길



이 아주 나빠서 오고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모든 재료가 구입이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4월 20일부터는 이곳 여러 책임자들과 우물 공사에 관해 의논중이며 아울러 허가 수속절차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오는 도로 공

사가 시작된 바람에 우물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물 파는 회사에서 아주 큰 기계를 움직여 와야 하는데 길이 나빠 힘들다며 어쨌든 이 주간에는 기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 되는데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2차 메일 : 데레사 수녀님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저를 생각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물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현향축일 때문에 며칠 중단되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계속하고 있답니다. 오늘 펌프 작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이 품어 나오니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전기 연결이 되어야 정식으로 펌프연결이 가능합니다. 전기연결작업은 전기기사가 와서 해야되는데 좀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물탱크 설치작업이랍니다. 모든 작업과정을 사진 찍어 보내겠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려주십시오.

이 아네스 수녀 드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My dear friend, NAMSAN CHURCH

Greetings from Nepal. How are you and how have you been? I hope this letter finds you in the best of health and good will.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very generous donation of US\$ 1,667 which I have made received from you, and would like to assure you that the donation which you have will be used to feed and clouthe The Earthquake Affected People and especially for our School Childern. I will personally try and send you a few photographs of the events. We will pray for your misson.

I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help us with such endeavors in the future.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very kind and generous donation.

– Best Wishers, sister imelda. –



친애하는 남산성당 가족여러분께

네팔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편지가 친선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잘 도착되길 소망합니다.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에서 보내주신 미화1,667\$(200만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돈은 지난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특히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데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후원을 희망하며 다시 한 번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의 친절과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네팔에서 이멜다 수녀 올림 -

하늘 · 구름 · 바다 그리고 희망 무지개

두 팔을 쳐들면 맞닿을 것 같은 푸른 하늘 · 구름 · 그리고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 보면서 후원자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산성당 후원자 여러분 !

밝아오는 새해에 후원자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을 빌며,
“IAKEE[마샬어] LOVE” 인사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 잘루일! 잘루일 섬은 성 요셉학교에서 차로 45분 떨어진 곳이며, 인구는 170명, 이곳에는 초등학교와 예수성심 성당 공소(가정집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2011년 교장 선생님의 초대로, 주1회 혹은 월 1회 Bible 성가를 제가 교육합니다.

신나게 노래하는 시간에는 아이들 눈망울이 푹뭉뭉하고, 도레미는 모르지만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우리를 새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가득 채워 주시는 분’(시편 118,1)임을 아이들 통해 알게 합니다.

이곳의 학교 학생들은, 너무 가난해서 식사는 하루 한 끼로, 갈아 입을 옷도 없고,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닙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고 당당하며, 예쁜 미소와 열린 마음이 있기에 매일 저를 감동케 합니다. 이들이 바로 저희들의 귀한 보석입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열린 마음을 경험합니다.

2014년 11월에 대구 교구 까리따스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정 조

사를 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 즉 방 하나에 5-6명이 생활하고 화장실은 바다이며, 식수, 목욕물은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한 개의 타올로 온 가족이 사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삼촌 집에 그리고 어머니는 친척집 등에 얹혀사는 가족들을 보면서, 루이스 가르시아 주교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의 첫째 임무는 가난한 사람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더 가난한 (경제적, 정신적)사람을 도우는 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연민의 삶을 사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돕고 연대하는 삶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곳의 사는 분들의 직업은 코코넛을 말려서 코브라(코코넛 기름)를 만들어 파는 것, 코코넛으로 캔디를 만들어 파는 것이 주업인데, 배가 마주로 수도에서 이곳까지 오는 것은 1년에 2-3회 이며,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은 여유 있고 친절하며, 함께 복음적 나눔을 하며 단순한 삶에 만족합니다.

이곳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각자 배운 것을 나누는데 즉 자신의 талан트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노래잔치 및 장기 자랑으로 축제를 즐깁니다. 축제 후에 주어지는 커다랗고 달달한 사탕 하나 먹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열린 마음과 복음적 나눔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안아 주시는 이곳의 어린이들에게 기도로, 물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형제. 자매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시는 여러분에게 아기에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눈여겨보시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6년에도 복된 새해 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마살 잘루일에서 이 레나타 M.S.C. 수녀 드림.

¡Que la Paz esté con ustedes!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남산성당 교형자매 여러분!

소식을 전해드린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2014년과 2015년 두해동안 전 세계의 가톨릭 공동체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을 중심으로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로 이웃에게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던 공동체 에서도 “상처입고 멍들고 먼지 묻기를 두려워 말고 거리로 나가라”는 교황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복음화를 모색했습니다.

2014년은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내실을 다져왔다면, 2015년은 가슴에 머금은 복음의 씨앗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에 집중 했습니다. 2015년 케리그마 소식지에서 칠레라는 나라를 표현했던 “Un país bautizado pero no evangelizado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 되지 않은 나라]”라는 문구를 기억하실런지요? 이처럼, 칠레 국민의 대다수가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공감하면

서, 공동체 신자들 과의 회의를 통해 직접 이웃을 방문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역별로 조원을 구성하고 사제와 함께 매일 매일 문을 두드리며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그리스도교 정서가 깊이 뿌리 내린 사회분위기와, 다닥다닥 붙어있는 소규모의 단층 혹은 복층주택들이 대부분인 동네상황 덕분에 방문자체는 그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하느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Creo en Dios, pero a mi manera no más.”

“[저도 하느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요, 그냥 제 방식대로 믿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느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느껴요.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또한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매일마다 하느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사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벽과 도전

저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공동체 신자들도 직접 이러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니 많이 놀라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합니다’라는 정보가 ‘아! 실제로 그러하구나’라는 자각과 체험으로 마주하게 되니, 더욱더 두터운 벽과 한계가 느껴진 것입니다. 매달마다 한 번씩 조원들 전체가 모여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교황님의 권고말씀과 함께 복음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금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편안한 지역에서 나와서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변방’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여기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활기차게 하는 복음의 기쁨은 선교의 기쁨입니다. ... 길을 나서는 것, 우리 자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복음의 기쁨> 20, 21항 참조)

모르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Chile 사람들이 즐겨 쓰는 “Poco a poco con paciencia”(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라는 말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사람들과 지역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이웃들에게 미사시간, 아이들 세례신청과 첫영성체 교리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때때로 병들고 쇠약한 노인들이 계시는 가정을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병자성사도 드리면서 꾸준히 하느님의 손이 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가정방문선교를 통해 미사참례신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결실을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거리로 나가 방문을 다녔던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더 굳세어진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앎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성장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형제애 또한 더욱 끈끈하게 형성되어갔던 것입니다.

또 다시 새로움으로

“그분은 …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 어깨에 태우셨습니다. … 항상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머리를 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망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분명히 그렇게 합시다. 그분의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재촉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를 나서게 합시다. ”

[<복음의 기쁨> 3항 참조]

올해부터는 7개 공소로 구성된 ‘성 골롬반 본당’에서 주임신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전에 있던 본당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도전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각 공소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고, 저마다의 분위기가 있고, 저마다의 고집이 있는 이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또 ‘그 뜻’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멀리 계신 남산 성당 교우여러분들도 항상 하느님 안에서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Dios es misericordioso!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2015년도 해외선교 후원회 소식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1월 11일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페루) 100만원 지원 · 살레시오 수녀회 (에티오피아) 100만원 지원	
2월 1일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잠비아) 100만원 지원 · 해외원조주일 행사 : 선교 현지 수녀 초청 강론 및 모금 · 케리그마 13호 제작 배부	
3월 28일	· 예수성심전교 수녀회(필리핀, 베트남) 각 100만원 총 200만원 지원 · 3월 교우 차 봉사활동	
4월 30일	·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중국) 각 100만원 지원	
5월 10일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각 100만원 · 5월 교우 차 봉사활동	
6월 1일	· 안락성당 '해선후'와 연석회의	
6월 14일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몽골) 100만원 지원 · 예수의 선교 수녀회 (콜롬비아) 100만원 지원 ·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7월 12일	· 요셉수녀회(네팔) 200만원 지원 · 7월 교우 차 봉사활동	
8월 9일	· 작은예수 수녀회(브라질) 100만원 지원 ·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삼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소식지 제 2015-2호~ 케리그마 한국의 해외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현지 주민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입니다. Altiplano(고산지역) 적응기[1] 한국의 해외선교사들이 고산지역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고산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의 기후와 지형은 매우 험난하며,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독특합니다. 선교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현지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후원회 활동 소식

9월 13일	· 그리스도 교육수녀회 (콩고, 코트디브아르) 각 100만원 지원 · 9월 교우 차 봉사활동	
10월 5일	· 안락성당 '해선후'와 연석회의	
10월 11일	· 보혈선교수녀회(케냐) 100만원 · 10월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11월 8일	· 예수그리스도 수녀회 (에콰도르) 100만원 지원 · 한국외방선교회(캄보디아) 100만원 · 11월 교우 차 봉사활동	
12월 13일	· 박기덕 신부(칠레) 100만원 지원 · 12월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 정기총회 및 임원 선출 · 2015년 결산 및 2016년 계획 수립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16년간 활동 후원 현황

(2000년 8월 ~ 2015년 12월)

총 33개국, 35개 단체에 224회에 걸쳐서 현금 2억6천8백2십3만 3천원과
후원 물품 359박스 90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선교 후원회지 '케리그마(kerygma)'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

경원한의원 원장 이경원 (아네스) 051-517 -8384 남산 지하철 5번 출구 앞	보신탕 원 조 박 달 집 소고기보신탕·삼계탕·영양탕 대표 임완규 (가비노) 박외숙 (M.스텔라) 051-515 -9879 010-7148-9879 금샘로 외식타운 산복도로	이경일 내과 원장 이경일 051-582-3399 남산 지하철 5번 출구 경원한의원 3층
브리첼 과자점 대표 박우진 오해양 051-582 -8221 010-3294-7074 남산동 럭키남산아파트 입구	다림골 보원당 생활건강 건강중탕일체·홍삼엑기스 대표 황임선(마리아) 051-583 -3078 010-5766-3478 신동아APT 101동 정류소 앞	파리바게트 (배달가능) 대표 이석주(프란치스코) 이정희(효주아네스) 051-517 -8254 010-3552-5472 010-2565-5472 선경 3차 아파트 입구
LG생활건강 오취후숨(화장품) 청윤진 건강식품 대표 서상연(펠리치마스) 051-507 -8823 010-8344-5452 거제리 법원앞 도원B/D 7층	필승 노래방 대표 차금순 (마리아) 051-514- 3933 010-4840-3933 구서1동 구서시장 입구 부산은행 사거리	탐세일 마트 대표 김성조(베르나르도) 정인자(데레사) 051-512 -7563 010-3022-7440 남산동 가족사랑 병원 옆
한우 고기집 대표 심현선 051-512-9966 산복도로 우정갈비 옆	다비치안경 두실점 대표 김완석 (알폰소) 김임영 (루피나) 051-516 -4470 010-2862-2754 두실 지하철 3번출구	부용탕 대표 김양수 (요한) 조귀옥 (카타리나) 051-513 -0033 010-3862-6376 선경1,2차 아파트 후문
황 치 과 의 원	원장 황순호 (라우렌시오)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 정회원 대한치주과학회 정회원 Tel : 055-385-6727 fax : 055-382-5551 양산시 신기서길 31(주공상가 208호)	



천주교 부산교구 남산성당
해 외 선 교 후 원 회
전화(051) 583-6314~5